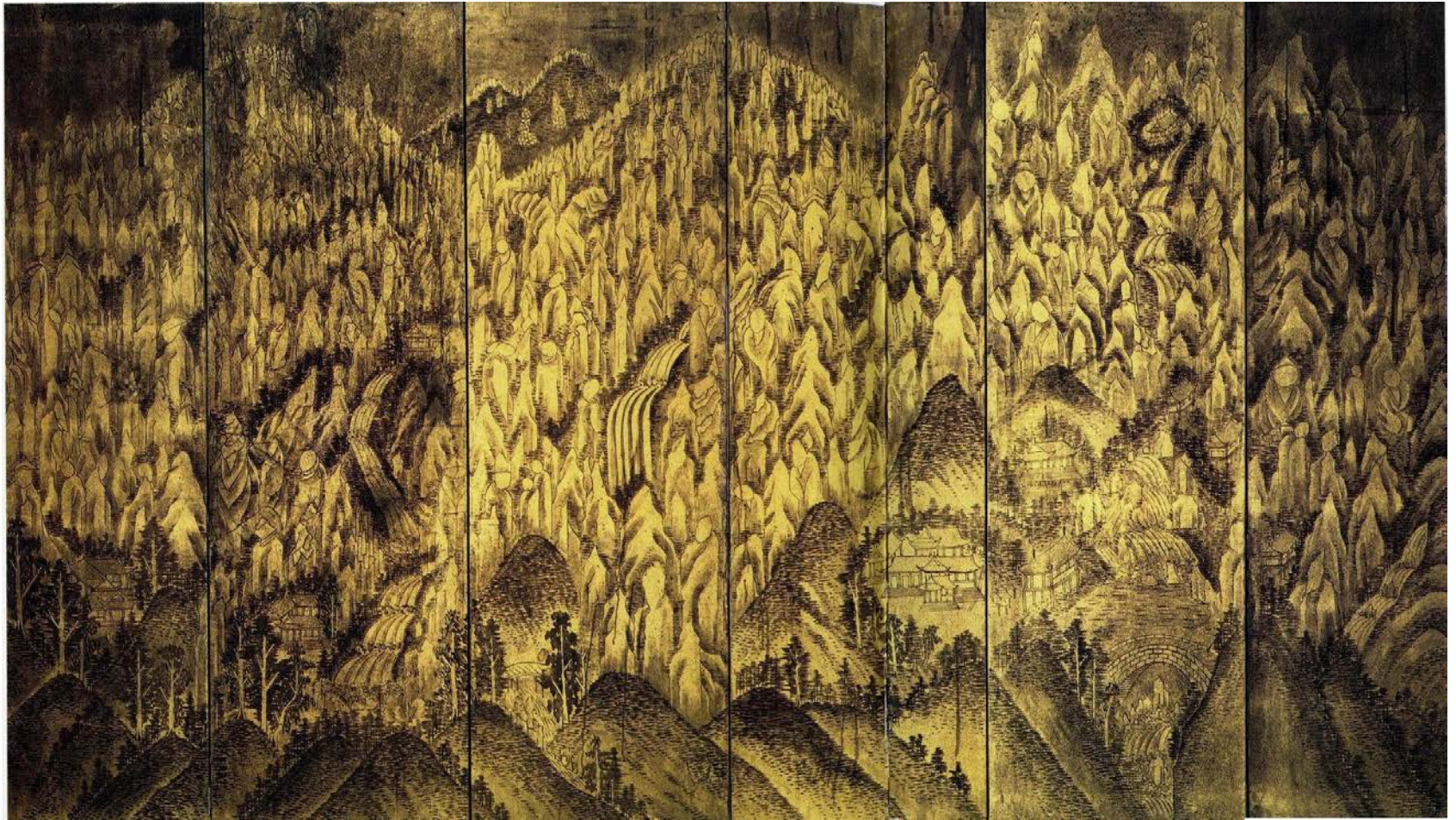


동아시아의 성산 금강산

이종묵(국문학과)

금강6폭(개인소장)



금강8폭
(선문대)



천하의 명산 금강산(1)

- 금강산(金剛山)의 다른 이름 : 풍악(楓嶽) 개골(皆骨) 봉래(蓬萊) 열반(涅槃) 기달(悵怛) 중향성(衆香城)
- “이 산은 그 이름이 천하에 유명하다. 심지어 저 먼 곳인 천축(印度) 사람들까지도 가끔 찾아와서 이를 구경하는데 대개 하는 말이 본 것이 들은 것만 못하다고들 한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서촉(西蜀)의 아미산(峨眉山)이나 남월(중국의 광동 및 광서 지방)의 보타산(普陀山)을 찾아가 본 사람들 또한 다들 듣던 것만 못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내가 본 이 산으로 말하면 실로 듣던 것을 훨씬 능가하니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화가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이곡李穀)

천하의 명산 금강산(2)

- “금강산은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 기슭에 있는데 뛰어난 경관이 천하에 으뜸이다. 그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는데, 일찍이 들은 바에 의하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들 이 산을 한 번 찾아와서 구경하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심지어는 이 산을 그림으로 그려서 걸어 놓고 거기에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까지 있다고 한다.”(권근權近)

천하의 명산 금강산(3)

- "산의 모양이 하늘의 남북에 우뚝 솟아 큰 땅덩어리로 누르고 있는데 큰 봉우리가 36봉이요, 작은 봉우리가 1만 3천봉이다. 한 가지가 남으로 200여 리를 뻗었는데, 산 모양이 높고 뾰족하여 금강의 본상과 같은 것은 설악산이요, 그 남쪽에는 곁따른 영(嶺)과 악(岳)이 있다. 동쪽의 한 가지가 또 하나의 작은 악을 이뤘으니 천보산(天寶山)인데, 하늘이 눈이나 비가 오려면 산이 절로 울므로 이름을 읍산(泣山)이라 한다. 읍산이 양양 후면을 돌아서 바닷가로 닫는데, 오봉(五峯)이 특별히 섰으니 낙산(洛山)이다. 금강의 한 가지는 또 북으로 백여 리를 뻗어 한 고개가 있으니 이름은 추지(湫池)요, 추지의 산이 또 통천(通川) 고을 후면에서 여러 산과 만나서 끊어지지 않고 북으로 굴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총석정(叢石亭)이다."(남효온南孝溫)

불경에 나오는 금강산

- “동북의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담무갈(曇無竭) 보살이 1만 2천의 보살들과 더불어 항상 반야를 강설하였다.”(『화엄경華嚴經』)
- “어떤 산 하나가 동해의 동쪽 가까이에 있는데, 비록 전체가 금으로 된 것은 아니나 상하 사방을 위시하여 그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속의 모래까지도 모두 금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멀리서 바라보고는 곧 전체가 금이라는 말들을 한다. 이 산에서 이따금씩 성현이 출현한다.”
- (『화엄경華嚴經』)

일본인이 흠모한 금강산(1)

- “소승이 장년 때에 대국에 와서 놀아 좌우의 알아주심을 입어 의복과 말을 많이 주셨습니다. 풍악의 금선(金仙)의 자취를 등반할 뿐 아니라, 또한 대조(大朝)의 문물의관(文物衣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으니 무슨 다행함이 이 보다 지나겠습니까. 이후 28년 동안 마음에 새기어 잊지 않고 자나 깨나 생각하였습니다.”(문계 文溪)
- “신이 오랫동안 금강산 유점사를 우러러 예불하기를 원하고 바랐습니다. 비록 그러나 몸소 섬의 정무를 잡아서 귀국의 동쪽 울타리의 임무를 담당해야 하므로 마침내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 이것이 한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양지화상(仰之和尙)을 특사를 삼아 이제 향 한 포를 가지고서 보내니,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 아뢰어 금강산 유점사에 이르러서 신을 대신하여 향을 올리게 하여 주소서.”(대마주 태수 對馬州太守 종정국 宗貞國)

일본인이 흠모한 금강산(2)

- “천우상인(天祐上人)이 ‘금강산의 신령하고 기이한 것은 천하에 이름이 나서 우리같이 유람하는 사람이 이 산에 가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니 원하건대 지팡이를 머무르고 구경하게 해 주소서.’ 하고, 이어 시를 지어 그 뜻을 통하고 이 말을 우리 임금에게 아뢰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전하는 예관(禮官)에게 명령하여 그의 소원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또 특별히 안장 갓춘 말까지 주어 더욱 융숭히 대우하게 하였다. 그 해 가을에 역마를 타고 금강산을 찾아가게 하니 마음껏 구경하고 보는 대로 기록하여 글을 지었는데, 모두 만 마디나 되었다.”(정이오 鄭以吾)

일본의 금강산(곤고산)



중국인의 소원 금강산 구경(1)

- "풍악(楓岳)이라고도 하고, 개골(皆骨)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산수가 천하에 이름났는데, 이 산의 천만 봉우리는 눈처럼 서서, 높고 절묘함이 으뜸이며, 또 불서에 담무갈보살(曇無竭普薩)이 머물던 곳이란 말이 있어서, 인간의 정토라 이른다. 민간에서 "중국 사람들이 또한 '고려국에 태어나서 직접 금강산 보기를 원한다(願生高麗國親見金剛山)'라 한다."라는 말을 한다."(세종실록)
- "금강산에 온 한 두목(頭目)이 하늘에 맹세하여 '이는 참으로 부처의 경계이다. 원컨대 여기서 죽어 조선인이 되어 이 부처의 세계를 영원히 보려 하노라.(此眞佛境 願死作朝鮮人 長見佛世界)'라 하고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남효온南孝溫)

중국인의 소원 금강산 구경(2)

- 금강산을 유람하고 와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태종에게 자신의 팔뚝을 드러내어 불로 지진 곳을 가리키며 “내가 금강산에서 팔뚝에 불로 지진 것은 서천(西天)의 부처를 부른 것입니다.”(중국 사신 온전溫全과 양녕楊寧)
- 조선 태종이 “중국의 사신이 온다면, 반드시 금강산을 보고자 할 것이니, 어찌 할꼬? 속언에 중국인에게는 고려에 태어나 친히 금강산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 하는 말이 있다 하는데, 그러한가?” 하자 하륜(河崙)이 나와서 “금강산이 동국에 있다는 말이 대장경(大藏經)에 실려 있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라 하였다.(태종실록)

중국인의 소원 금강산 구경(3)

- 세종 13년 8월 26일 창성(昌盛)이 금강산 그림을 요구하여 허락하였고, 단종 3년 6월 3일에는 정통(鄭通)이 수양군(首陽君)에게 금강산 그림을 청하자 도승지로 있던 신숙주(申叔舟)가 화원 안귀생(安貴生)을 시켜 그림을 그려주게 하였다. 그러나 정사(正使)인 고불(高黼)이 자신도 수양군에게 청한 바 있는데 부사(副使)에게만 주고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 불평하면서 황제에게 바칠 사시(四時)의 경치를 갖추어 10여 폭을 그려달라 청하였다. 또 예종 원년 8월 25일에는 윤잠(尹岑)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명에 가서 성절(聖節)을 축하하면서 태감(太監) 등이 성지(聖旨)로 청한 금강산도를 바치게 하였다.

북경 홍경사로 옮겨진 금강산(1)

- “명 도목(都穆)의 <경사향산기(京師香山記)>에 ‘절에 들어가 천불전(千佛殿)을 보니, 전각이 원형으로 만들어지고 극히 정교했다. 성화(成化) 초년에 환관의 손에 창건되었는데, 환관은 고려 사람이었다. 일찍이 그 나라 금강산에 원전(圓殿)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곳에 옮겨 놓은 것이다.’라 했다. 일찍이 금강산에 원형의 전각이 있음을 듣지 못했는데, 정양사(正陽寺)에 육각(팔각?)의 전각이 있으니 그 제도인가 의심스럽다.’라 하였다.”(이덕무李德懋)

북경 홍경사로 옮겨진 금강산(2)

- “홍광사(弘光寺, 洪光寺) 역시 오래되고 큰 사찰로, 정동(鄭同)이 중수하였는데, 정동(鄭同)은 조선 사람이다. 절안의 원전(圓殿)에는 천불이 각자 보련(寶蓮) 위에 앉아 있는데, 모두가 아주 정교로우며, 대석(臺石)에는 강입강(姜立綱)이 글씨를 쓴 비(碑)가 있다.” “향산(香山)에서 서쪽으로 수백 보를 가면 홍광사에 이르는데, 원전이 아주 정교롭다. 성화 초에 중관(中官)에 의해 창건되었는데, 중관은 조선 사람으로, 그 나라의 금강산에 원전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곳에다가 그 제도를 옮겨 놓은 것이다.”(한치윤 韓致滌)

북경 홍경사로 옮겨진 금강산(3)

- “북문에서 벼랑을 따라 2리 쯤 가면 홍광사에 이르는데 지세가 더욱 좁아진다. 그 위에 비석이 있는데 성화 연간 태감 정동이 건립한 것이라 하였다. 대개 은 70만 냥을 썼다.”(명 이동양李東陽)
- “홍광사는 향산에 있다. 선덕(宣德) 연간에 내시 정동이 건립하였다. 정동은 고려 사람으로, 그 나라의 비로전(毘盧殿)의 제도를 본떠서 원전을 만들고 비로불을 모셨다. 문 안에 있는 소나무 숲길이 널따랗게 조성되어 있는데 가장 그윽한 경치가 있다.”(청 손승택孫承澤)

북경 홍경사로 옮겨진 금강산(4)

- “홍광사는 태감 정동이 건립했는데 정동은 조선인으로 네 번 본국에 사신으로 갔고 성화 연간에 죽었다. 불각(佛閣)은 팔고(八觚)로 되어 있는데, 동국의 제도라고 한다.” “홍광사로 들어가니 비록 좁지만 천불각(千佛閣)은 터가 팔각이면서 둥그스름하며 그 제도는 가락지 형상으로 둘러 있는데 불상 하나가 한 자를 넘지 않는다. 영락 연간 조선의 국왕 이구(李杻)가 내시를 진상했는데, 정동이 태감을 역임하고 안문관(雁門關) 등의 제독을 지냈으며, 네 번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가 죽었다. 성화 초에 세운 절의 전각은 그 나라의 제도를 따랐다고 한다.”(청 담 천담遷)

북경 홍경사로 옮겨진 금강산(5)

- "향산사(香山寺) 서북쪽으로 십팔반(十八盤)이라 부르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면 홍광사가 나오고 그 동북에 비로원전(毘盧圓殿)과 정전(正殿) 5칸이 있으며 태허실(太虛室)과 향암실(香嶠室)이 좌우에 있다. 또 강희제(康熙帝)가 중수하면서 원전에는 '광명삼매(光明三昧)'라는 편액을, 정전에는 '자운상음(慈雲常蔭)'이라는 글씨를 직접 써서 현판에 걸게 하였다. 건륭제(乾隆帝)가 1745년 정의원(靜宜園)을 만들면서 이 절을 다시 손보고 '향암정역(香嶠淨域)'라는 어제를 내렸다."(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
- "홍광사 후문 바깥에는 '혜형(蕙馨)'과 '지채(芝采)'라는 건륭제의 글씨도 걸려 있었다."(일하구문고日下舊聞考)

북경 홍경사로 옮겨진 금강산(6)

- 정동(1415?-1483)은 1469년 3월 4일 함께 사신으로 온 최안(崔安), 심회(沈繪) 등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나섰다. 이때 신숙주(申叔舟), 윤자운(尹子雲), 노사신(盧思愼) 등 정승과 판서들이 관반(館伴)으로 수행하였고 영의정 한명회가 보제원(普濟院)까지 나가서 전송하였다. 정동의 눈에는 수많은 금강산의 봉우리가 천 구의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이 웅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중국으로 돌아간 정동은 금강산을 중국에 재현하고자 하여 북경 서북쪽 향산에 있는 정의원에다 홍광사를 지었다. 홍광사를 창건하면서 둥근 모양의 전각을 짓고 그 안에 비로자나불을 모셨다. 그 안팎에 천 구의 불상을 얼굴과 등이 향하게 두었다.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처럼 자연스럽게 불상을 배치하였다.

비로도로 그려진 홍광사 천불

-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이 1755년 북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 어떤 노승을 통해 홍광사 천불도(千佛圖)를 보고 나눈 대화(<비로도기(毗盧圖記)>)
- “이곳은 풍악산이지 홍광사의 천불이 아닙니다.”
- “명의 환관 정동이 사신의 임무를 띠고 풍악산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귀국하여 홍광사에 천 구의 불상을 새겨 비로봉을 본뒀지요. 명이 망하고 연경의 여러 선원들이 잣더미가 된 것이 많았지만 정동이 새긴 천 개의 불상은 예전처럼 묘하고 고왔습시다. 화가가 서로 전하여 그림으로 그린 것이지요. 이제 당신은 금강산만 보았지 산이 천 구의 불상으로 변한 것은 알지 못한다 하겠습시다.”

사라진 홍광사(1)



사라진 홍광사(2)

- 香岩室原为静宜园28景之一，是洪光寺的一组建筑。位于香山寺西部的洪光寺内，该寺建于明成化元年，(清康熙十六年(1677年)由高丽人太监郑同仿朝鲜金刚山圆殿主持修建，乾隆年间敕修。院内建筑主要包括：香岩室(五间抱厦三间歇山式楼阁) 内建毗卢圆殿(重檐琉璃建筑)，正殿五楹，左为太虚室(三间硬山建筑)等，再左为香岩室。乾隆有“寺据层岩室号香”说明香岩室名称来历。1860年被毁，民国年间围田中玉的私人别墅。
- 乾隆御制《香岩室》诗序曰：“据香山东岭有古刹，名洪光。明成化中中官郑同重修，同高丽人，相传寺毗卢圆殿即仿其国金刚山为之者，未知信否，因迥为高，临虚标秀，予旧题曰香岩净域”(北京香山文化_新浪博客)

향산사



금강산 구경(1)

- "산에 다니는 것은 인간으로서 첫째가는 고상한 일이다. 그러나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은 가장 저속한 일이다."(강세황姜世晃)
- "우리나라에 나서 금강산을 구경하지 못하는 것은 사주(泗州)를 지나면서 대성(大聖)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우리나라 선비가 부끄러워하는 바다."(윤봉조尹鳳朝)

금강산 구경(2)

- "매양 금강산에서 노닐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 본 것이 들은 것만 못하다고도 하는데, 이 말도 괴이할 것이 없소. 옛날 제갈량(諸葛亮) 밑에 있었던 한 늙은 군졸이 진(晉)나라 때까지 생존했었는데, 후자가 제갈량에 대해서 묻자, 그는 '무후가 살았을 때에는 보기에 특이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후가 죽은 뒤에는 다시 이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 답하였소. 이 말을 옮겨다가 이 산의 공안(公案)으로 만들 만하오."(김정희金正喜)

시로 읽는 금강산(1)

- 성석린(成石璘), <금강산(楓岳)>
- 일만 이천 봉우리,
- 높낮이가 절로 다르네.
- 그대 보게나 해 돋을 때
- 높은 곳 가장 먼저 붉어짐을.
- 一萬二千峯 高低自不同
- 君看日輪上 高處最先紅

시로 읽는 금강산(2)

- 신광한, <영동의 임소로 가는 당질 원량과 헤어질 때 주다(贈別堂姪元亮潛之任嶺東郡)>
- 일만에 다시 이천 봉우리
- 바다의 구름 다 걷히자 옥빛이 곱다.
- 젊을 때는 병으로 이제는 늙어서
- 끝내 이름난 산 저버린 백년 인생.
- 一萬峯巒又二千 海雲開盡玉嬋妍
- 少時多病今傷老 終負名山此百年

시로 읽는 금강산(3)

- 이이(李珣), <비로봉에 올라서(登毘盧峯)>
- 지팡이 끌며 정상에 오르니
- 긴 바람 사방에서 불어온다.
- 파란 하늘은 머리 위의 모자요
- 푸른 바다는 손 안의 술잔이라
- 曳杖陟崑崙 長風四面來
- 青天頭上帽 碧海掌中盃